



나의 염증성 장질환 위험도는?

장 건강 진단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



아래와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

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.

▶ 장증상

- 꽤 오래 전에 시작된 설사 또는 무른 변이 하루 3회 이상 있다.
-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온다.
-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복통이 있다.
- 밤에 복통, 설사 때문에 잠을 깬다.
- 항문질환(치루 또는 농양의 진단, 항문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)이 있다. (치핵 제외)

▶ 장외 전신증상

-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(체중의 5% 이상 감소)
- 이유 없이 피곤하다.
- 열이 나거나 밤에 베개가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난다
- 혈액검사에서 빈혈이 있다.

▶ 가족력

-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.

